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8.2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에 재정적 독립을 위한 전략 제시 요구(8.26)

- 호라이즌 유럽 산하 60개 파트너십 대부분이 2026년까지 EU 자금 없이 독립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청받음
- ※ 이번 전략 수립 대상은 공동 자금지원(co-funded)과 공동 프로그램(co-programmed) 파트너십에 해당되며, 공동사업단(Joint Undertakings)과 유럽혁신기술연구소(EIT) 혁신 커뮤니티는 제외됨
- 집행위는 향후 파트너십 선정은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와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,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개편, 합병 등 각 파트너십의 전략적 비전과 발전을 모색할 기회라고 말함
- 파트너십 전략 초안은 2025년 12월까지 제출되어야 하며, 최종 전략은 2026년 3월 채택. 집행위는 오는 9월 25일 전략 수립 워크숍을 개최 예정

○ 이사회, EU 스타트업 전략에서 연구 역할 강조(8.26)

-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근 발표된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
- 해당 전략은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강력한 연구혁신 생태계가 스피노프와 스타트업, 딥테크 기업의 유지·정착·확장에 핵심이며, 인재와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
-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인재 유치뿐 아니라 유지에도 있음. 이사회는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과제임을 강조하였으며, 인재 정착을 위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가 ERASMUS+ 등 기존 프로그램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

○ (기타) ▲2025년 EU 연구 자금 관련 주요 이슈(8.26) ▲캐나다 정치인의 동물 연구 관련 발언에 대한 '심각한 우려' 표명(8.21) ▲독일 학계 지도자들, 가자지구 분쟁에 '깊은 우려' 표명(8.20) ▲벨기에 대학,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정지 재차 촉구(8.21)